

빈민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와 행당지구 지지방문을 제안합니다.

수신 : 각 단대 학생회 및 여성 관련 단체

발신 :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준)

일시 : 98년 1월 6일

0. 들어가며

지난 9월, 행당지구 강제 철거 당시 용역강패들에 의한 집단적인 성폭행이 일어났다. 이미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 사건은 사실상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탄압이 있는 현장에서, 진압이 있는 현장에서는 항상 성폭력이 난무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성들에게 '폭력'이란 항상 성을 매개로 한 '성폭력'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사회의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에 은폐되어왔던 성폭력을 고발하고 대응하기 위해 토론회와 지지방문을 제안한다.

1. 행당 지구 강제 철거 ~~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개요

97년 9월 30일 오전 9시 경, 행당동 1-2 재개발 지구 철거 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행당동 강제 철거를 위해 재개발 조합과 철거 계약을 맺은 적준 용역 소속 철거강패 300명과 서울 지방 법원 동부지원에서 1일 고용원 200여명을 동원했고 외곽에는 성동경찰서 소속 병력 3개 중대가 배치되었다. 강제 철거 반대를 위한 외부 집회 참석으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역 출입이 봉쇄된 상태였고 몇 분만에 집들이 철거되었다.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10여명의 여성들은 철거강패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죽을 날 받아 놓은 년아. 늙어 X도 못할 년이 주점떠네."라는 욕설과 함께 가슴을 걷어채고, 어느 여성은 옷이 다 벗겨진 채 속옷 바람으로 들려나왔다. 아이를 업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은 가슴을 물어 뜯겼으며 음부를 잡히는 수모를 당했다.

적준은 서울 지역 철거의 약 60-70%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로, 용역강패들을 동원해 이전에도 수십 차례 철거 주민들을 폭행한 일들이 있어왔다. 현재 적준은 고소에 들어간 상태이고 성동경찰서는 직무유기로 고소된 상태이다.

2. 빈민 여성들을 탄압하는 또 하나의 무기

성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여성이 대상화되는 속에서, 남성의 권력이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성폭력이 일상화되어 비밀비재하게 일어난다. 일상화되어 있는 성폭력은 다른 권력과 결합되어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의 억압으로 작동한다. 즉, 용역강패들은 자본의 힘을 등에 업고, 전경들은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게 된다. 성폭력은 이들에게 여성들을 진압하기 위한 일종의 무기로 이용된다. 그들에겐 지역 주민들은 탄압 받아야 할 빈민이며 노동자이며 그리고 또한 여성인 것이다.

우리는 5, 6공 시절, 학생과 민중 탄압 속에서 여성들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성폭력을 당한 것,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을 하나의 역사로 재구성하고 침묵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3. 토론회와 지지방문을 제안합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여태까지 묻혀져 왔다. 신보수주의니 경제 위기니 국민대화합이니 앞으로 더욱 거세질 민중 탄압 속에서 성폭력을 읽어내는 것은 권력의 억압적 메커니즘을 더욱 치밀하게 대응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을 근절시키고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대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빈민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

일시 : 1월 13일 늦은 2시

장소 : 학생회관 4층 학생회의실

행당동 사건을 비롯해 그간 수도 없이 일어났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행, 용역강패들에 의한 성폭행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입장을 정립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당지역 지지방문

일시 : 1월 4째 주

행당동 주민들을 만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학생들이 이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갑시다.

16일부터 전국 동계 빈환이 진행됨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행당동 지지방문은 빈환 기간 이후가 됩니다.